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도입	일본
산업·경제	3	소상공인 사업체 발전단계별 지원전략 모색	런던
	5	‘영세 자영업 활성화 지원’ 전자화폐 프로그램 운영	자카르타
사회·복지	7	독일 최초로 성소수자 청소년센터 개관	베를린
	10	사회·종교단체, 카지노 자원봉사로 기부금 받아	앨버타
	13	새 학기 맞아 아동보육정책 전면 손질	파리
환경·안전	15	‘모든 도시 이용자의 안전 보장’ 실행계획 수립	시드니
도시교통	18	‘만남의 존’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보르도
정보·기타	21	‘오픈 데이터 포털’ 운영해 다양한 도시정보 공개	베를린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도입

데이터 활용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제’도 시행

일본 / 산업·경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물인터넷(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촉진하고자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도’와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도입
- 배경
 - 일본 내 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 증가
 - 특히 제조업 현장 등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그 활용이 제조업 등의 지속 성장 필수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
 - 하지만 일본의 데이터 활용은 미국·독일 등에 견줘 낮은 수준이며, 활용하더라도 부가가치 확대에 이어지는 고도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2017년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일본은 16.4%로 미국(41.0%)과 독일(31.7%)에 견줘 상당히 낮음
 -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도 데이터의 수집·집적이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황파악 등이 위주고, 분석결과를 업무효율 향상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같은 부가가치 증대에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 주요 내용
 -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가지 지원제도를 도입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특정 데이터 활용산업에서 정부나 행정법인의 보유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동은 전자적 기록 정보(데이터)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수법을 이용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산업활동을 뜻함

- 기업이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무대신이 해당 계획을 인정
 - 신청부터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
 - 기업이 제출한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는 IoT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지원에는 중소기업기구의 채무보증, 중소기업 신용보험 특례 등이 있음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 중 협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기관 등에 보유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대상은 공동출자회사, 업체단체(협회나 연합회) 등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안전관리를 확인받아야 함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7월 19일 ‘데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공개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data.html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eisanseisochihoukyoukahou/pdf/gaiyou-2.pdf>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kouteki_data/01_data-kyouyu_flow.pdf

권용수 통신원, dkrnlwjstjf@naver.com

산업·경제

소상공인 사업체 발전단계별 지원전략 모색

영국 런던市 / 산업·경제

- 영국 런던市는 시 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함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발전단계별 지원전략을 모색
- 배경
 - 런던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지원은 많지 않은 편
 - 런던 내 상시근로자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수는 100만여 개이며,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장·사업체의 96%에 해당
 - 지난해 런던 소상공인 사업체의 총수입은 2억 7,730만 파운드(4,043억 원)로, 런던 경제의 27%가량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
 - 또한, 이들은 지난 5년간 런던에 약 28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음
 - 정부와 런던시의 소상공인 지원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
 - 공공의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10~249명 기준)에 집중
 - 빠르게 성장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임대, 사업공간, 비즈니스 어드바이스, 재정지원 분야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
 - 이에 따라, 시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주요 내용
 - 시정부가 150개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주로 호소
 - 응답자의 59%는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대답
 - 그다음은 경제적 부담문제가 58%, 꾸준하지 않은 소득이 44%,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사업공간 마련과 유지에 관한 고민이 38% 순

- 시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발전단계를 4개로 나누고, 장·단기적 어려움을 파악

[표 1] 런던시 소상공인 사업체 발전단계별 어려움

발전 단계	단기적 어려움	장기적 어려움
스타트업 단계	새로운 손님 유치와 시장 진입 및 확장(68%) 사업 운영비 부담(59%) 일정치 않은 수입(49%)	사업 운영비 부담(65%) 채용과 적절한 인력 유지(41%) 적당한 사업 공간 확보(41%) 신규 고객 유치(41%) 새로운 관리 기술과 리더십 함양(41%)
정착 단계	사업 운영비 부담(58%) 새로운 손님 유치와 시장 진입 및 확장(48%) 채용과 적절한 인력 유지(42%)	사업 운영비 부담(68%) 적당한 사업 공간 확보(44%) 신규 고객 유치(42%)
사업 활성화 단계	사업 운영비 부담(57%) 새로운 손님 유치와 시장 진입 및 확장(53%) 일정치 않은 수입(47%)	사업 운영비 부담(70%) 신규 고객 유치(40%) 일정치 않은 수입 대처(37%)
사업 부담 단계	새로운 손님 유치와 시장 진입 및 확장(67%) 사업 운영비 부담(57%) 일정치 않은 수입(51%)	채용과 적절한 인력 유지(71%) 사업 운영비 부담(64%) 경력 관리 계획(50%)

- 소상공인 사업체의 발전단계별 지원전략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구체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활용
 - 스타트업 단계: 사업 초기의 관리·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워크숍 개최, 마중물 역할을 해줄 재정지원 등
 - 정착 단계: 사업공간 확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재정지원 등
 - 자택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 해외시장 개척 사례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 정부지원 프로그램 소개
 - 사업 활성화 단계: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소셜미디어 광고, 새로운 판매경로 확보 노하우 교육 등
 - 사업 부담 단계: 소상공인이 첨단기술을 기존 사업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assembly/micro-business-micro-help>

<https://w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london-assembly-publications/what-works-micro-businesses>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영세 자영업 활성화 지원’ 전자화폐 프로그램 운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산업·경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남자카르타시는 주정부의 1구 1창업센터(OK OCE) 정책의 틀 안에서 침체된 영세 자영업자의 활성화와 빈민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전자 지역화폐 프로그램인 ‘와르자’(WARJA)를 이슬람 자선종교단체 및 민간 IT업체와 협력하여 시작
- 주요 내용
 - WARJA는 우리말로 ‘시민과 함께 잘나가는 가게’의 약자로, 자카르타 주정부의 행복도시 추진 정책 중 하나이며, 빈민층의 사회복지와 서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함
 - 이 지원 사업으로 카바요란 baru(Kabayoran Baru)구에 있는 상점 1천 개소와 1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
 - 시정부는 앞으로 꾸준히 사업 수혜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
 - “시민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곧 그들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업소에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 남자카르타 시장 마물라흐 마탈리
 - 이슬람 자선종교단체인 ‘빈민들의 지갑’(돔펏 두아파)이 기존에 빈민층에게 제공하던 도움을 아토즈페이(Atozpay)라는 스마트폰 앱과 연계한 프로그램
 - 아토즈페이는 바코드를 이용해 식당 등에서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앱
 - 돔펏 두아파에서 빈민층에게 발행하는 지역 전자화폐 카드인 와르자를 아토즈페이 앱에서 식당 바우처 등으로 교환해 사용
 - 1구 1창업센터(OK OCE)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현재 1구 1창업센터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영업자는 35,000명 이상



[그림 1] 와르자카드를 사용하는 자카르타 주민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8/30/dompot-dhuafa-gandeng-ok-oke-salurkan-donasi-melalui-pedagang-warteg>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8/30/wali-kota-jaksel-resmikan-warja-ok-oke>

<http://akurat.co/id-300478-read-dompot-dhuafa-gandeng-ok-oke-dan-weetland-indonesia-sinergi-kembangkan-warung-sejahtera>

<http://www.gatra.com/rubrik/ekonomi/340941-Program-Warja-Berdayakan-UMKM-Bantu-Masyarakat-Miskin>

<http://www.dompetdhuafa.org/post/detail/8740/progam-warja--berdayakan-warung-kecil-dan-bagikan-manfaat-bagi-dhuafa>

<http://selatan.jakarta.go.id/news/2018/08/wali-kota-jaksel-resmikan-warja-ok-oke>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사회·복지

독일 최초로 성소수자 청소년센터 개관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독일 베를린市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범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성소수자의 삶에 관해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과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센터를 독일 최초로 개관함. 성소수자 청소년센터는 성소수자 청년·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 배경
 -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범죄가 문제로 대두
 - 독일 청소년 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의 74%는 친구가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69%는 부모의 반응을 걱정하며, 61%는 학교에서 배제당하고 있다고 응답
 -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도 일반 청소년의 4배 이상에 달하며,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
 - 한편, 베를린에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
 - 2017년 베를린 경찰청이 보고한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총 161건
- 정책 진행 과정
 - 교육 및 청소년부의 상원의원들이 적-적-녹 연합(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청소년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 2018~2019년 연간 성소수자 청소년센터 예산 17만 5천 유로(2억 3천만 원) 책정
 -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이 이성애적 삶의 방식 이외의 삶에 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센터에서 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구현해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상원의원 산드라 쉬레즈(Sandra Sheeres)

- 주요 내용

- 청소년센터 운영의 중심인 람다(Lambda) 청소년 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청소년 네트워크
 - 1990년에 설립되어 800여 명의 회원을 지녔으며, 젊은 게이·트랜스젠더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
 - 2014년 슈판다우(Spandau) 지역에 활동장소를 마련했지만, 최근 국가적 규모 확장과 이전이 이뤄지면서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고 새로운 그룹을 조성
- 청소년센터 운영의 주요 목표
 -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성소수자 청소년끼리 우정을 쌓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며,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아 주체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를 지원
 - 나아가 이들이 공공·정치 분야에서 십대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도록 함
- 주요 활동 1: 상담 프로젝트 인앤아웃(In and Out)
 - 성소수자 청소년이 주로 겪는 문제인 커밍아웃 부담, 부모님과의 마찰, 친구와의 갈등, 차별과 외로움 등의 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
 - 성소수자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친척, 친구, 교사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역시 상담 가능
 - 상담사도 같은 성소수자 청년으로(만 26세 이하) 자신과 유사한 이들을 돕고자 지원한 봉사자
 - 성소수자 청년 상담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 상담사·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여해 상담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감독과 추가 교육을 받음
 - 상담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이메일·전화·편지·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주요 활동 2: 교육 프로젝트 퀴어@스쿨(queer@school)과 람다 도서관
 - 퀴어@스쿨은 성소수자의 삶을 주제로 한 교육의 장으로, 학교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대화를 고취
 - 람다 도서관은 엘리트주의 독서에서 벗어나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고자 함

- 주요 활동 3: 청소년 그룹활동
 -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신과 유사한 청소년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토론하거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룹 활동
 - 성소수자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반과 장애요소를 함께 논의
 - 보드게임, 영화 프로그램, 주제 토론 프로그램 등



[그림 1] 람다 성소수자 청소년센터 전경

- 의의
 - 성소수자 청소년센터는 성소수자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지지하여 모든 성별의 동등한 권리와 모든 사람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연대체로 자리매김
 -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보조하고 이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이후 이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도록 함

<https://www.lambda-bb.de/>

https://www.lambda-bb.de/wp-content/uploads/2014/11/lambda-englisch_layout.pdf

<https://www.berlin.de/sen/bjf/service/presse/pressearchiv-2018/pressemitteilung.735003.php>

<https://www.morgenpost.de/bezirke/pankow/article215243425/Landesweites-queeres-Jugendzentrum-in-Berlin-eroeffnet.html>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senatsbeschluss-berlin-bekommt-ein-queeres-jugendzentrum-29627270>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사회·종교단체, 카지노 자원봉사로 기부금 받아

캐나다 앨버타주 / 사회·복지

- 캐나다 앨버타주 게임·주류 위원회(AGLC: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는 2009년 캐나다 최초로 허가된 사회·종교단체에 한해 카지노 운영에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카지노로부터 상당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개요: 앨버타 자선 게임 모델(Alberta Charitable Gaming Model)
 - 자격을 갖춘 단체만 게임(카지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은 게임 직접 참여가 아닌 칩 환전, 화폐 계수, 부패니저, 칩러너 등의 운영 전반으로 한정
 - 신청 대상의 종류: 학교, 박물관, 도서관, 문화센터, 스포츠클럽
 -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은 자선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해야 함
 - 빈곤 구제, 교육 발전, 종교 발전,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
 - 자선 게임에 참여하는 단체의 자격 조건
 -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회원제 단체이고, 민주적으로 설립된 조직이어야 하며, 무급 자원봉사 회원과 임원이 있어야 함
 - 광범위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수익금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총 수익은 게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게임 수익의 일부
 - 허가를 받은 단체는 카지노, 빙고, 복권이나 당일 행사를 개최해 수익금을 얻고, 수익금은 AGLC가 승인한 자선 활동에 사용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장학금, 비영리 단체 운영비, 예술작품 기부금 등으로 사용
 - 참여단체는 수익금 사용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AGLC는 모든 참여단체에 연례 재정보고서를 요구하며, 해당 단체는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회신해야 함
 - AGLC에는 자선 게임 면허가 있고 수익금을 받는 그룹의 감사권이 있으며, 수익금의 오용을 발견했을 때는 수익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그림 1] 카지노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자 부스

－ 운영 방법

- 신청 단체는 AGLC의 엄격한 심사를 받은 뒤 자선 게임 운영허가를 얻음
- 허가를 받은 단체는 기존 회원 또는 클럽 학부모에게 기부금이나 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원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
 - 대표적으로 축구클럽이나 하키클럽에서 학부모의 심판·코치 보조활동을 자선 게임 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
 - 사립학교나 학원에서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학생 모집 시 학부모에게 자원 봉사를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함
 -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는 조직은 사전에 AGLC와 카지노 운영 업체에서 지정한 날짜와 봉사 내용을 공지하고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
- 해당 단체가 금~일요일 중 봉사 가능한 시간과 직책을 공지하면, 봉사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
 - 봉사자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을 맡게 되며, 평균 7~10시간 정도의 노동을 제공
 - 근무시간은 오전 9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45분까지로 정해져 있음
- 2014~2015년 회계연도에 앨버타주는 이 자선 게임 모델로 2억 4,400만 캐나다 달러(2,100억 원)를 3,446개의 비영리 단체에 배분
 - 앨버타주 전역에 19개의 자선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평균적으로 2일간의 자선 게임 이벤트마다 18,000캐나다달러(1,550만 원)를 자선단체에 기부
 - 평균적으로 봉사자 1인이 시간당 380캐나다달러(33만 원)의 이익을 창출

- 카지노에 따라 다르지만, 1일당 봉사자 15~36명, 봉사시간으로는 75~140시간이 필요
 - 봉사자에게는 20~25캐나다달러(17,000~22,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
- 최근 동향
 - 자원봉사 위치에 따른 불평등 문제 발생
 - 에드먼튼시에 있는 5개의 카지노는 수천 개의 관련 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모금원이 되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시설에 배정된 단체의 불만이 높음
 - 변두리 카지노에 배정된 봉사자가 새벽 3시 이후에 이용할 교통수단이 부족
 -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5개의 카지노를 돌아가며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꿀 계획
 - 정부는 각종 단체의 자원봉사 형태가 자선 게임 모델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
 - 적은 노력으로 큰 기금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카지노 게임 봉사에 편중
 - 새벽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자원봉사자는 수면부족 호소
 - 반면, 앨버타 자원봉사자 연합과 각종 비영리 조직은 앨버타에서 시행 중인 자선 게임 모델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상당 부분 근거가 없다고 주장
 - 이외에도 선의를 가진 자원봉사가 한탕주의에 근거한 도박 운영의 도구로 이용되며,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자원봉사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악마와의 거래’로 칭하는 여론도 상당함

<https://aglc.ca/gaming/charitable-gaming>

<https://medium.com/@Rockster/-60150f57235c>

<http://volunteeralberta.ab.ca/blog/concerns-over-the-government-of-albertas-charitable-gaming-model-review>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gaming-commission-says-charity-fundraisers-will-have-to-roll-the-dice-on-casino-venue>

<https://canmorepreschool.com/2014/07/08/sign-up-online-to-volunteer-for-the-casino>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새 학기 맞아 아동보육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 9월을 맞아 아동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함. 특히,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육아보조사(Assistant Maternel)를 중심으로 보육관련 자원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데에 집중
- 개요: 파리시 아동보육정책 방향
 - 파리시는 아동보육정책을 아동 사회화과정에서의 개입으로 개념화
 - 파리시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가 개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
 - ‘파리를 어린이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노력 지속
 - 어린이도 파리시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겪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파리시 모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동보육정책의 핵심
 - 완전히는 불가능해도, 각 가족과 아동의 필요와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프랑스도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9월 말에 새 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며, 파리시는 이를 맞아 아동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재정비
- 주요 내용: 2018~2019년도에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들
 - 2018년 탁아소의 아동 수용 능력을 3천 명 늘렸고, 2020년까지 추가로 2천 명분의 자리를 더 마련할 계획
 - 프랑스 가족복지청(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과 긴밀히 협조
 - 육아보조사 활용을 위주로 한 25개 행동방침 제시
 - 육아보조사는 파리시에서 정식자격증을 발부받은 육아 전문가로, 파리의 부모들에게 맞춤형 보육지원을 제공하는 파리시 정책의 핵심 인력
 - 육아보조사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육아·보육 관련정보를 더 강화
 - 가족과 육아 담당 전문가(육아보조사 포함)의 접촉을 늘릴 것
 - 육아보조사 4명이 16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육아보조소 2곳을 신설
 - 보육 관련자원의 양을 늘리고 질을 향상

- 아동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유기농 음식 비율이 70%를 넘도록 노력
 - 전문 영양사가 재료와 메뉴를 선정하고, 시정부는 지방 유기농 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도움
 - 유기농 음식 비율이 70%를 넘는 보육기관에 인증마크 부여
- 관련 사항: 파리시의 아동보육정책과 현황
 - 2008년 아동 관련기관의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 ‘칼리파리’(QualiParis: Qualité[질] + Paris)를 설립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
 - 보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시하고 운영에 개입하며 기관과 시민 사이를 매개 해주는 아동관련 전문요원 9천여 명이 존재
 - 파리시 전체 아동의 과반이 공립 탁아소를 포함해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탁아소에서 보육
 - 2018년 기준 파리시 공립 보육기관은 790개이고,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35,432명
 - 육아보조사는 3,037명이 있으며, 6,096명분의 아동보육을 담당
 - 개인맞춤형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
 - 파리시는 413개의 공립탁아소를 비롯해 여러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방이나 비정기 탁아소 등 다양한 보육기관을 운영
 - 다용도 보육시설(multi-accueil)은 탁아소 기능뿐 아니라 보육에 관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파리시에 171개가 있음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를 위한 비정기 탁아소가 105개
 -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이 36개, 탁아소와 유치원의 중간 개념인 육아 놀이방이 5개
 - 육아보조사가 아동을 집단으로 보육하는 가족 탁아소가 28개
 - 부모들이 모여 만들고 시의 공인을 받은 부모 탁아소가 33개
 - 이처럼 다양한 보육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과 아동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ville-bienveillante-se-mobilise-pour-la-petite-enfance-6060>
<https://www.paris.fr/petite-enfanc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환경·안전

‘모든 도시 이용자의 안전 보장’ 실행계획 수립

호주 시드니市 / 환경·안전

- 호주 시드니市는 경쟁력 있는 도시는 곧 주거 적합성이 높은(liveable) 도시이며, 주거 적합성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은 바로 안전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민은 물론 유학생과 관광객 등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체감적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 배경과 개요
 - 시드니시는 안전한 도시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안전성 저하 위협에 대비할 필요
 - 시드니는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가 선정한 안전한 도시 순위(The Safe Cities Index 2017) 10위 안에 드는 도시
 - 하지만, 도시인구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시정부는 도시안전을 시민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인식
 - 안전한 도시는 활기찬 경제의 밑받침이자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이며, 비즈니스·교육·관광 등의 분야에 안정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 도시안전을 높이는 ‘모든 이를 위한 안전 실행계획안’(A City for All: Draft Community Safety Action Plan 2018~2023, 이하 ‘안전 실행계획’)을 수립
 - 안전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주민, 경찰, 정부·비정부 기구, 학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 데이터 분석으로 범죄의 장기패턴을 검토하고, 위험요인과 강점을 종합 점검
 - 다른 도시의 안전관리와 범죄감소 정책사례를 수집
 - 거주민, 근로자, 사업가, 관광객, 유학생 등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체감(perceived) 안전과 실질(actual) 안전을 제공한다는 목표

– 주요 내용

- ‘안전 실행계획’은 네 가지 우선영역을 선정하고, 영역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

[표 1] 시드니 안전 실행계획 개요

영역	목표	실행계획(발체)
안전한 거리와 도시공간	- 거리와 공공장소의 체감·실질 안전 제고 - 창의적이고 활기찬 야간 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감소 - 도로, 대중교통, 보행 안전 제고	-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개념 적극 도입 (거리의 조명, 가시성, 길안내 등을 개선해 범죄 행위가 자연스럽게 포착되고 노출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 야간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고, 음악·미술 등 창작예술 활동을 촉진해 야간경제를 활성화 - 야간 안전 지원 프로그램 지속 시행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연결 강화, 도심 자동차 속도제한, 보도 확장, 횡단보도 확충, 나무그늘 확대
범죄 예방·대응	- 범죄 발생기회 사전차단 - 가정 폭력과 성범죄 감소 -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책 지원	- 주민에게 도둑·가택침입 예방 교육을 제공해 범죄 발생기회 차단 - 경찰과 협력해 소매점 절도, 쇼핑센터 날치기 방지 프로그램 시행 - 가정폭력 줄이기와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한 ‘가정폭력 개혁 청사진’ 프로그램과 ‘화이트 리본’ 프로그램 시행 - 아동 관련 기관·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행위 예방
준비된 시민	- 시민의 위기상황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시민연계 강화로 안전성 향상 - 약물·음주 피해 감소	- 최근 수립한 ‘회복 탄력적 시드니’ 전략을 충실히 이행 (※ 438호 참조,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시민 자생능력 함양) -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진작 - 약물·음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 시행, 약물·음주 관련 지역사회 인식 개선
안전한 국제도시	- 방문객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안전한 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 유지 - 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안전’은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갈 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 공항, 도심 등 주요 관광객 유입로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와 주요 관광지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재정비 - 뉴사우스웨일즈 유학청, 시드니 소재 대학들과 협력하여 신입 유학생 환영식 개최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청과 함께 도시 마케팅을 적극 추진 -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전략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지표를 개발해 계획 진행상황과 성과를 확인
 - 시민 안전지표에 근거해 시민의 주관적 체감 안전도와 객관적 실질 안전도를 측정
 - 안전 실행계획 추진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점검
 - 안전 실행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 최종 성과를 검토

[표 2] 시드니 안전 실행계획 성과 지표 기본틀

영역	성과 지표(예시)
안전한 거리와 도시공간	- 시민 안전 체감도 - 야간안전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 교통사고율 - 대중교통 이용률
범죄 예방·대응	- 세부 지역별 범죄율 - 시민의 위기 대응 능력·기술·지식 측정 - 가정폭력 및 성범죄 관련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준비된 시민	-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제공 횟수 - 시민 간의 연계성(connectedness) 측정 - 금연 지역 수 - 약물 투입 주사기 회수 용기 수
안전한 국제도시	- 외부 관광객의 안전 서비스 인지도 측정 - 유학생의 안전 서비스 인지도 측정 - 세계 도시안전성 지표 모니터링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delivering-safe-and-resilient-communities>

<http://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your-say/community-safety-action-plan>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304761/Draft_Community_Safety_Action_Plan_2018-2023.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도시교통

‘만남의 존’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교통

- ‘걷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실제로도 다양한 보행자 우선 정책을 꾸준히 펼쳐 구도심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프랑스 보르도市는 크게 ‘구도심 차량통행 제한’, ‘Zone 30’, ‘만남의 존’, ‘보행자 전용구역’의 4가지 정책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확립
- 구도심 차량통행 제한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도심은 아래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진입이 제한
 - 주민카드 소지자(해당 구역 거주민이나 주차장 정규 이용자)의 차량
 - 소방차, 환경미화 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등 공공 서비스 차량
 - 한시적으로 진입허가를 받은 응급이송 차량
 - 접근도로 길목마다 설치된 자동 상하이동식 블라드와 통신장치로 진입 제한
 - 구도심 진입을 원하는 운전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된 인터폰으로 신분과 용무를 밝히고 진입허가증명을 받아야 함
 - 매일 오전 7~11시 배달차량, 의료진 차량, 현금 수송차량 등의 진입은 허가
 - 구도심 진입 차량의 통행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



[그림 1] 구도심 시가지 차량진입 제한 장치의 모습



[그림 2] 보르도 시내의 다양한 보행공간

- Zone 30

- 주거 밀집지역, 스쿨존, 보행자가 많은 시내 지역 등을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설정
- 'Zone 30'은 차량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한 구간으로, 보행자가 많은 구역의 차도가 주요 대상
 - 붉은 원안에 30이라고 적힌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등으로 구분
- 이 구역에서 각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함
 -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어디서든 길을 건널 수 있지만 항상 좌우를 살피 주위 50m 내에 차량이 없을 때에 건널 것을 권장
 - 자전거이용자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가능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야 하지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도로 안쪽 주행은 허용
 -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자전거가 양보
 - 차량 운전자는 시속 30km를 넘어 주행할 수 없으며, 항상 교통약자에 주의하고 보행자·자전거에게 이동 우선권을 양보해야 함

- 만남의 존

- 이 구역은 보행자, 자전거, 2륜 차량,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
 - 이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20km로 'Zone 30'보다 엄격히 제한됨

- 만남의 존 진입로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돌바닥 등 요철이 심한 바닥재를 사용해 차량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하여 사고 예방
 - 만남의 존에서 각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대체로 'Zone 30'과 유사하며, 제한 속도는 20km로 더 낮음
 - 보행자는 모든 상황에 우선권이 있음
 - 차량은 주행경로에 보행자가 많아도 클랙슨(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고 보행자 흐름에 맞추어 서행해야 함
- 보행자 전용구역
- 이 구역은 문자 그대로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차량진입이 엄격히 통제
 - 자전거 이용자와 셔틀 버스 등 구역 내 이동차량만 예외적으로 진입이 허용되지만, 도보 속도(10km/h)로 서행해야 함
 - 보행자 전용구역에서 각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함
 - 보행자는 모든 상황에서 이동 우선권이 있지만, 다른 이용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이동 속도가 시속 10km를 넘을 수 없음
 - 응급차량과 공공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일체 진입 금지
- 시사점
- 걷기 좋은 도시는 다른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체계적 규제장치를 확립하고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우리는 누구나 자전거 이용자도 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도 될 수 있지만, 내리면 모두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

<http://www.bordeaux.fr/p129741/zones-apaisees#aire-pietonne>

http://www.bordeaux.fr/p70174/voie-et-domaine-publics?cmq_path=%2Fvos-droits%2F4f60bb542935946e8d000006%2Fin%2Fcommunes%2F33063

<http://www.bordeaux.fr/p1263/zones-reglementees>

<http://plan.bordeaux.fr/bordeaux/?context=P5YM>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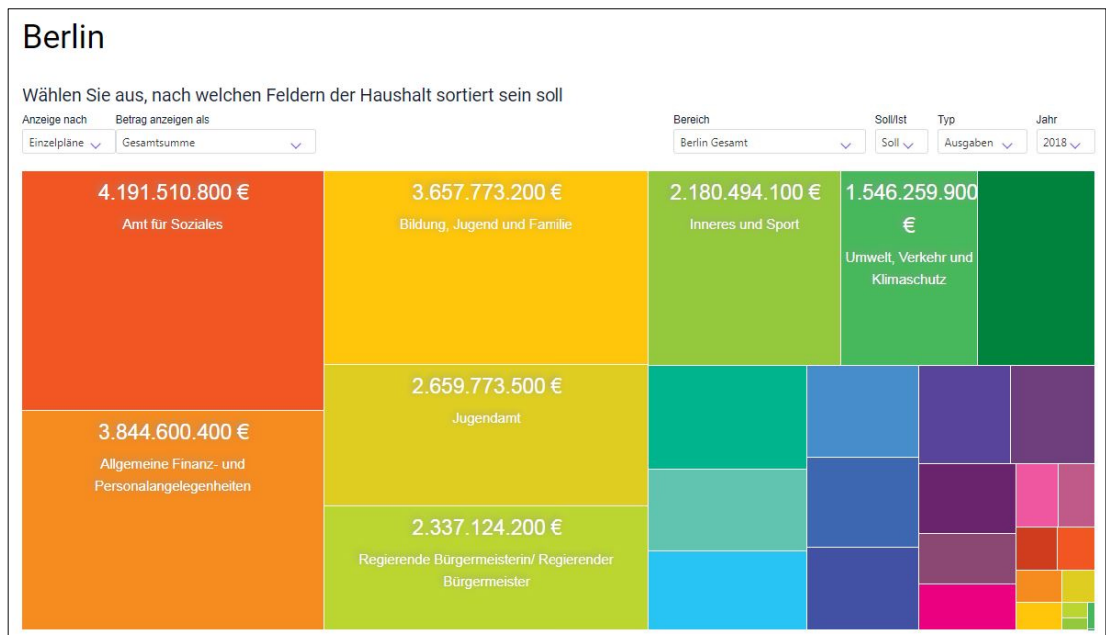
정보·기타

‘오픈 데이터 포털’ 운영해 다양한 도시정보 공개

독일 베를린市 / 정보·기타

- 독일 베를린市는 도시의 현황과 운영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베를린 오픈 데이터 포털을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고, 올 8월에는 오픈 데이터 정보 안내센터를 신설함. 현재 인구, 지리·도시계획 등 22개 카테고리 아래 1,743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 중이며, 이 데이터는 각종 언론사, 기업,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중
- 배경
 - 2010년대 독일 주요도시의 행정기관은 앞다퉀 정보 투명화를 시행하고 오픈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 뮌헨시는 2010년부터 모그디(MOGDy)라는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함부르크시는 2012년에 투명성법을 제정하고 투명포털 운영을 시작
 - 베를린 경제·기술·연구청은 2012년 2월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운영
 - 독일 프라운호퍼 포커스(FOKUS) 연구소에서 오픈 데이터 전략을 개발
 - 현재 주무부서는 경제·에너지·기업청으로 변경
- 주요 내용
 - 베를린 오픈 데이터 포털은 현재 총 22개의 카테고리 내 1,743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 중
 - 주요 카테고리는 노동시장, 교육, 인구, 지리·도시계획, 건강, 청소년, 예술·문화, 예산·조세, 사회복지, 스포츠·여가, 환경·기후, 선거, 주거·부동산 등
 - 유럽연합의 펀드(EFRE)와 2016년 시작한 ‘서비스 도시 베를린’(Service Stadt Berlin)이라는 베를린시 행정 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미래 프로젝트’(Projekt Zukunft)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
 - 베를린 기술 재단(Technologiestiftung Berlin)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데이터를 분석·활용

- 베를린 기술재단 산하의 Ideation & Prototyping Lab은 베를린 오픈 데이터 포털의 자료를 해독·분석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 2018년 5월 16일에는 오픈 데이터 안내센터 ‘오디스’(ODIS: Open Data Informationsstelle)를 개설
 - 오픈 데이터 안내센터는 베를린시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기술적 세부내용 관리, 오픈 데이터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
- 베를린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공유하는 활용사례만 이미 54개
 - 시민이 다양한 도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작에 활용
 - 시정부의 분야별 예산 할당 비율을 보기 좋게 시각화한 홈페이지, 지역별 전기 소비 비교를 시각화한 지도 등
 - 주요 언론사도 오픈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사를 작성해 많은 시민의 주목을 받는 중
- 시정부는 오픈 데이터의 날, 오픈 데이터 점심시간 등 각종 관련 이벤트를 개최
 - 관련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네트워킹의 자리도 마련



[그림 1] 베를린시의 예산 배분 현황을 시각화한 홈페이지 화면

- 의의

- 독일에서 정보 투명화와 오픈 데이터 서비스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하나의 흐름이자 패러다임 전환
- 오픈 데이터 제공으로 누구나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됨
-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회도 제공
- 시정부는 기업과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의 참여도 독려

<https://daten.berlin.de>

<https://netzpolitik.org/2012/berliner-open-data-strategie-veroeffentlicht>

<https://www.technologiestiftung-berlin.de/de/startseite>

<https://lab.technologiestiftung-berlin.de/projects/open-data-stats>

<https://odis-berlin.de>

<https://www.technologiestiftung-berlin.de/de/blog/die-meisten-sind-schnell-begeistert-von-open-data>

<https://www.berlin.de/sen/finanzen/haushalt/haushaltsplan/artikel.5697.php>

<https://felixebert.de/energyhackday>

<https://www.berlin.de/sen/inneres/moderne-verwaltung/servicestadtberlin>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Direktorium/IT-Beauftragte/Projekt-E--und-Open-Government/Das-eoGov-Projekt.html#das-vorgnger-projekt-mogdy_8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